

영어로 전화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31 450의 번역통역 서비스(TIS)에 먼저 전화하면 된다.

<http://mhcs.health.nsw.gov.au>의 Multicultural Communication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더욱 많은 건강정보를 한국어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전화번호들은 출판 당시에 정확한 것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번호부에서 번호를 확인해 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Korean  
18 October 1999

## 유방암에 관한 정보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Information about breast cancer - it's only a phone call away

**REVIEWED**  
October 2001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website: <http://mhcs.health.nsw.gov.au>  
e-mail: [mhcs@sesahs.nsw.gov.au](mailto:mhcs@sesahs.nsw.gov.au)  
phone: (02) 9382 8111

**NSW**  **HEALTH**  
DEPARTMENT

## 유방암에 관한 정보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Information about breast cancer - it's only a phone call away

유방이 아픈 것은 암의 증세인가? 남자들에게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가? 뉴사우스웨일즈 캔서 카운슬 (NSW Cancer Council)의 전화 상담부는 매일같이 여성들 및 그의 가족들이 문의해 오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호주에서 12명에 한 명 정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방암에 관한 문의처 전화번호는 본난 끝에 나와 있다. 다음은 유방암에 관하여 흔히들 문의하는 내용들이다.

**검진용 매머그램(유방엑스레이)과 진단용 매머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검진용 매머그램은 유방에 아무런 증세가 없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 검사의 목적은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하므로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검진용 매머그램은 4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보레스트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 (BreastScreen Australia)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진을 받으려면 132050에 전화하여 예약하면 된다. 반면에 진단용 매머그램은 유방암의 증세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유방에 혹이 잡힌다든가 하여 유방암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증세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보낸다.

**매머그램은 유방에 해로운가?** 매머그램의 과정에서 유방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인해 유방이 잘못 된다든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암이 퍼지게 된다는 증거는 없다. 엑스레이에서 발산되는 방사선도 극소량에 불과하며, 2년에 한번씩 매머그램을 하므로써 유방암의 위험이 커진다는 증거도 없다.

**유방에 통증이 있으면 암일 수도 있나?** 유방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통증이 암의 증조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원인이 다른 것들에 있다. 예를들어 생리전 호르몬의 변화로 유방에 명어리가 생기면서 아파지는 경우가 그중에 하나이다. 또한 피임약 중에도 이와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기 시작했다든가, 또는 다른 종류로 바꿨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브래지어가 너무

꼭 끼어도 (특히 철사반힘이 들어있는 경우), 유방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방의 통증을 자가진단하려고 해서는 아되며,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 보도록 해야 한다.

**음식에 의해 암이 예방되거나 암이 생기기도 하는가?**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지방분이 너무 많고 섬유질(쌀, 파스타, 빵 및 기타 곡물음식과 야채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너무 적은 식사도 암의 원인이 될지 모른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는 해도, 아직 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된 바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나 고기가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술을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는 여자들에게는 유방암의 위험율이 더 높다는 증거가 있다. 유방암의 예방음식에 관해서는 대두식품과 콩과야채가 좋다는 증거도 있으나, 역시 확증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식품들은 여러 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므로, 규정식에 포함시키면 좋다.

**유방의 양성종양이 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섬유선종이라는 유방종양이 있는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이 생길 위험성이 더 큰 편이다. 그러나 이 종양 자체가 암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여의사를 원하는 여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여의사들은 여성건강센타에도 있고 가족계획클리닉에도 있다. 또는 동네 메디컬센타 중에 여의사가 있는 곳들도 있으니 전화하여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방암 수술을 여의사에게 받고 싶은 경우에도 가정의와 의논하면 여의사를 찾아볼 수 있다.

**유방암은 남자에게도 생길 수 있나?** 그렇다. 많지는 않아도, 유방암이 생기는 남자의 수는 호주에서만 해마다 50명이 넘는다. 그러므로 혹이 생기거나 살이 두툼해지는 등, 유방 부위에 어떤 변화를 느끼는 남성들은 의사에게 가 보아야 한다.

유방암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131120의 캔서 인포메이션 서비스 (Cancer Information Service)에 전화하면 된다.